

● 화보

제1차 한·일교수승공사상세미나



● 토론



● 소감 및 보충설명



● 주제발표

● SESSION 1 (주제발표)

새로운 勝共戰略

국제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승공전략이란
신의 심정을 바탕으로 정신부흥을 꾀해야 한다.



井上茂信

이노우에 시게노부

(駒澤大 國際關係論)

自由主義者の 缺點

自由主義者の 최대의 결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주의적이며 그리고 懶怠하다는 것, 換言하면 能動性を 缺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도 그렇지만 자유세계에서는 학계, 매스컴, 노동계등의 大部分이 左翼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自由主義者들의 개인주의적이고 戰鬪姿勢를 잃은 受動的態度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自由主義者들은 안일을 탐내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과로써 科學的 權威와 普遍성을 주장하고 本來 活動主義的인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組織의 權力을 奪取當하고 그들의 權力掌握의 永續化를 허용하는 것이 西方世界에서의 지금까지의 普遍的인 패턴이다.

왜 그럴까, 自由主義라는 것이 본래 體系的인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民主主義와 같이 단순한 行動이나 思考의 하나의 型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自由主義를 부르짖은 “밀”이나 “록크”의 哲學 그 자체가 受動的인 것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이 이데올로기擴大에의 狂信的인 情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自由主義는 개인의 自由를 기초로 하는 個人主義에 立脚하여 價値觀의 多樣성을 존중한다. 더우기 自由主義者는 共產主義者에 대해서도 人間의 性善說을 適用하기 쉽다. 이리하여 自由의 破壞를 겨냥하는 異端의 思想에도 너무 寬容的이었다. 레닌의 所謂「自由世界の 바보들」(1921年 치체린앞으로의 메모)이다.

外交面에서는 어떠한가, 美國의 예를 더듬어 보자. 例示하면 존·게난氏의 「封鎖政策」이다. 1946年 當時 美國務省政策企劃局長이었던 게난氏는 「호린·아페어즈」誌에 실린 論文중에서 「世界の 도처에 美國의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주어서 蘇聯勢力의 進出을 封鎖하여두면 蘇聯은 그 内部事情으로 붕괴되어 간다」고 論하였다. 이 理論은 트루만·독트린(1947年 3月17日)以後의 美外交의 根本理念이 되고 또 蘇聯의 위협을 받은 希臘, 土耳其에의 援助라는 형식으로 實行되었다.

그러나 「封鎖政策」에는 根本的인 缺陷이 있었다. 第一은 「蘇聯은 內部에서 崩壞한다」라는 幻想에서 출발하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本質을 알지 못하는 달콤한 議論이라고 할 수 있다. 第二는 무엇보다도 同政策은 蘇聯이 자기의 勢力圈에서 나와 外部에 세력을 擴大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抑止하는 것이고 能動的으로 이쪽에서 뛰어나와 共產主義를 타도한다는 積極的인 자세가 缺如되어 있었던 사실이다.

勝共이 아니었던 「封鎖政策」

日本에서는 反共政策의 本質的 存在로서 기억되고 있는 아이젠하워政權 때의 달레스國務長官은 어떠하였을까, 同長官은 民主黨政府의 「封鎖政策」을 통렬히 批判하고 「受勢의 體制로는 점점 빈약해질 뿐이다. 蘇聯의 약점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武力攻擊이외의 心理戰, 그외의 手段을 다하여 冷戰의 主導權을 美國이 蘇聯으로부터 탈취해야 한다」고 하여 소위 「롤백政策」을 主唱하였다. 그러나 사실 「롤백」이 행하여졌을까.

英國의 戰略家 부라이언·그로—자氏는 그의 著書 「살아남기 위한 戰略」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달레스는 트루만(大統領)이나 에치슨(國務長官)과 똑같이 “封鎖”政策의 主張者였다. 美國의 루이스·J. 하레교수의 말을 빌리면 美國은 “封鎖”政策과는 다른 “解放”政策을 取한적도, “大量報復”政策을 取한적도 한번도 없었다. 실제로 달레스를 잘보면 正열적인 反共主義者인데도 不拘하고 대개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달레스氏의 「롤백政策」의 原點이었던 「封鎖政策」의 缺點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그 結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本質을 알지 못하는 달콤한 議論이었다고 말하였으나 그 點에 對해서 그로—자氏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封鎖”政策의 本質은 되어가는대로 말긴다는 것이다. 또 “責任을 避하여 問題를 歷史에 委任하자”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가지 致命的 缺陷이 있다. 하나는 모든 다른體制에 勝利하여 “社會主義體制”가 究極的 勝利를 거둔다는 자신을 蘇聯이 반복하여 表明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能力을 缺如하고 있다는 것이다. 反擊하는 能力을 缺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케난”의 아프로—치의 근거없는 樂天主義 즉 美國이 좋은 模範을 표시하면 蘇聯國民은 사악한 支配者로부터 떨어질 것이라는 나이—브한 확신이다.」

참으로 精確한 指摘이 아닌가. 더우기 그로—자氏는 계속해서 「樂天主義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대체로 같은 程度의 不條理한 悲觀主義를 낳는다. “우러들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찌되었든 마찬가지다”라는 것이다. 戰後 數十年間을 돌아보면 지나친 樂觀主義와 陰鬱한 悲觀主義가 서로 交叉되어 있으며 어느것도 사실을 直視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참다운 리—더쉽을 取하는 勇氣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封鎖」는 「勝共」을 처음부터 除外한 「防共」내지 「反共」의 입장이며 오로지 敗北를 避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혀 受動的이며 敵에게 主導權을 장악하게 하고 있으며 美國의 思想家 제임스·바—남氏가 精確히 豫言한 바와 같이 서서히 그러나 착실히 對蘇宥和政策으로 變해가는 必然的 運命에 있었던 것이다.

「封鎖政策」의 失敗를 逆으로 말하면 蘇聯이 그와같은 政策으로서도 꿈적도 하지않는 強靱性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自由世界가 美軍의 그레나다進攻作戰을 轉機로 하여 참다운 의미의 對蘇 롤백戰略으로 轉換하려고 하려는 蘇聯이란 어떤 나라인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能動的·擴張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

蘇聯의 정체란 무엇인가. 美 조지타운大學戰略研究所의 上級研究員 에드워드·N. 루드왓크氏에 의하면 「蘇聯은 勢力擴大로 地理的, 民族的 제약을 받지 않는 제국주의국가이며 그 새로운 點은 超民族的인 階級鬭爭史觀에 따른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워싱턴·타임즈紙 83年 9月16日)라고 한다.

蘇聯憲法을 보자, 1977年 10月7日에 채택된 蘇聯憲法第四章 對外政策 28條에는 「蘇聯憲法의 對外政策은 蘇聯邦에서의 共產主義建設에 알맞는 國際的 諸條件의 확보, 蘇聯邦의 國家利益의 擁護, 世界社會主義의 立場의 강화, 민족해방과 社會進歩를 위한 諸國民의 鬭爭支援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民族解放」이란 이름의 全世界의 共產革命을 主唱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美 하—바드大學 政治學 교수, 리처드·파이프스氏는 80年 4月의 「코멘타리」誌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本질이 「社會的다—원主義」의 子息이기 때문이라는 精確한 分析을 하고 있다. 다—원主義는 말할나위도 없이 生物進化의 構造에 대한 하나의 學說이다. 요컨대 生物世界는 우수한 生存력을 가진 者가 弱한 者를 壓倒한다. 즉 生存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適者로서의 變異가 일어나고 進化가 發展한다는 이론이다. 哲學的으로는 헤—겔의 辯證法, 그리고 唯物論의 立場에서 이것을 攝取한 唯物辯證法에 다—원主義를 적용한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

唯物辯證法의 基本的 立場은 일체의 사물은 對立物과의 鬭爭에 의해서 自己運動하고 발전한다는 認識이다. 이리하여 파이프스氏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인류의 歷史를 끝없는 階級鬭爭의 歷史로 본다. 그리고 同主義는 階級鬭爭의 繼續을 擁護하고 階級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搾取를 一舉에 根絶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蘇聯의 安全은 資本主義가 絶滅된 후에 비로소 達成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世界共產化를 積極的으로 達成

하려고 하는 能動的 그리고 極히 好戰的인 敎理인 것이 그 第一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第二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特色은 國際的 敎理라는 것이다. 파이프스氏에 의하면 同主義의 國際性은 1847年以來의 共產主義者의 恒久的 슬로—진 「萬國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에 象徵되어 있다. 그리고 불세비키는 러시아의 政權變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의 혁명을 위하여 싸운 것이다.

또 루드왓氏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人種이나 민족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이다. 즉 「諸君이 어떤民族에 所屬되어 있는가는 문제가 아니다. 重要的 것은 어떤階級에 소속되어 있는가이다」라고 하는 것이 同主義의 골수이다. 이리하여 「노동자계급의 超民族的 支配」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蘇聯帝國은 세계의 끝까지 能動的으로 넓혀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歷史를 되돌아보면 英, 佛, 벨기에, 和蘭, 埃地利, 헝가리, 오스만의 各帝國의 擴大를 阻止한 것은 民族主義의 壁이었다. 나치스의 第三帝國도 게르만의 優位意識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蘇聯帝國主義의 경우는 그 實體는 여하튼 方針上으로는 支配民族의 要素가 없기 때문에, 또 러시아혁명을 통하여 民族을 超越한 이데올로기를 獲得하였기 때문에 세계의 구석까지 그 세력을 넓힐 수가 있었던 것이다.

自由世界와의 道德律의 非對稱性

第三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特色은 이상 말한 바와 같은 普遍主義의 歷史的 敎理로써 蘇聯支配層의 全世界의 野望에 힘을 준 것이다. 러시아는 가장 오래전부터 그리고 一貫된 帝國主義的 擴張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장주의의 世俗的 願望에 더하여 「階級없는 社會의 建設」이라는 “高遠한” 理想 더우기 「蘇聯政權이야말로 人類史에 있어서의 최후의 社會革命의 達成을 임무로 하는 거대한 進步勢力의 前衛를 대표한다」라는 自負心——이것들이 크레믈린에 「蘇聯政權은 싫증나지 않는 전진을 하여 外部로 向해 伸張하지 않으면 안되고 資本主義에 勝利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使命感을 주고있는 것이다.

第四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特色은 自由世界의 價値觀과의 非對稱性이다. 이 점에 대해서 유고슬라비아의 前副首相으로 共產主義의 官僚體質과 階級制度를 예리하게 指摘한 名著 「새로운 階級」으로 알려진 反體制哲學者 미로반·지라스氏는 蘇聯의 이데올로기면에서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蘇聯의 이데올로기는 죽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 결코 죽은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만든 秩序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질서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活力을 얻고있다. 蘇聯의 指導部와 支配體制는 자기들이 “反論할 수 없는 眞實”의 權化인양 행동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反論할 수 없는 眞實”이란 資本主義가 반드시 몰락하고 蘇聯型社會主義의 도래는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反論의 餘地없는 眞實” 不可避性

法則—이들에 의해서 蘇聯指導部는 道德的義務 或은 契約上의 義務에서 일체 해방되는 것이다」

그중은 예가 대한항공機墜事件이었다. 自由世界의 사람들은 「살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非道德的이라고 배워왔다. 蘇聯은 어떠한가, 그들의 價値의 자(尺)는 資本主義를 絶滅시켜, 擄取의 根絶을 목표로하는 共產主義世界側에 서는가 아닌가에 있다. 「적」과 「자기편」은 極히 명백하다. 이 兩世界의 鬪爭이 進行中이라도 그들의 世界觀下에서는 인간에라든가 生命의 尊重이라든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식의 自由世界의 道德律은 일체 통행되지 않는다. 資本主義는 얼마안가 멸망한다는 그들의 “反論의 餘地없는” 眞實에 背反하는 者는 비록 同胞이거나 부모이거나 子息이건 間에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道德律」인 것이다. 말하자면 惡魔側의 價値觀에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속에 「神性」이 있다는 것등은 생각하지 않는다. 唯物論者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主義의 反宗教性

이와같이 自由主義國家에는 反共主義者이면서 無神論者인 사람들 즉 自由主義無神論者들이 적지않으나 自由主義無神論에선 戰鬪的無神論을 自稱하는 共產主義理論을 비판하거나 지금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것은 어렵다.

그것은 今日까지의 反共運動의 歷史가 증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共產主義가 徹底한 反宗教思想이고 無神論思想이면서도 러시아의 宗教思想家 베르자예프가 「共產主義라는 이름의 宗教」라고 부른바와 같이 일종의 宗教의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다운 宗教思想(有神論思想)에 의해서만이 共產主義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하나의 思想이 출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主要한 要因이 複合적으로 作用한다. 그 하나는 主體의 要因이고 다른 하나는 對象의 要因이다. 主體의 要因이란 思想家의 心理, 性格, 個性 및 그가 그때까지 사용해온 人生觀, 世界觀, 歷史觀등의 정신적 조건을 의미하고 對象의 要因이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宗教的인 모든 상황 즉 社會的, 環境的條件을 의미한다. 思想家의 이상이나 목적을 중심으로하여 이와같은 두가지 要因이 相互作用할때 一定한 思想이 形成된다. 마르크스主義의 형성도 예외는 아니다.

이 원칙에서 볼때 基督教徒 및 猶太教徒에서 받은 差別待遇의 근거인 宗教에 憎惡와 反抗心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에게 怨念의 情을 지니게하고 無神論者로 되게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共產主義를 根本적으로 克服하는 思想은 宗教指導者에 의해서만 樹立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와같은 지도자가 直接 神으로부터 眞理를 繼承받으므로 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은 思想으로서 나타난것이 文鮮明先生의 統一思想이며 그 응용이 勝共理論이다.

레이건의 反共政策

마르크스主義의 反宗教性에 착안하여 宗教性을 土臺로 하여 對蘇聯政策을 세운것이 레이건의 「이데오·폴리틱스」와 「릴리지오·폴리틱스」이다.

레이건大統領의 反共姿勢는 「이데오·폴리틱스」(이데올로기重視의 政治觀)에서 출발하였다. 「이데오·폴리틱스」는 프랭크린·루즈벨트大統領以來의 美國의 「지오·폴리틱스」(地政學中心의 政治觀)의 실패에서 온 것이다. 「지오·폴리틱스」란 國際關係를 物理的인 힘이나 地政學上의 關係를 중심으로 처리하여 가자는 發想이다.

루즈벨트大統領의 對蘇觀은 寬大하고 알타에서의 密約을 중심으로 美蘇共同支配에 의한 戰後處理를 생각하였다. 닉슨·킨신저外交는 “敵의 敵은 우리편이다”라고 하여 충실한 同盟國 台灣을 버리고 北京과 손을 잡았다. 카터政權은 「共產主義에의 恐怖心을 버리자」고 하여 美蘇·데탕트를 추구하였다. 어느것이나 「지오·폴리틱스」이다. 그리고 그 特色은 國際關係에서 이데올로기나 價値觀의 問題를 그리 重視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카터政權時代의 蘇聯의 一方的軍事力增強과 아프가니스탄侵略에서 「지오·폴리틱스」는 破産되었다. 실패의 원인은 ① 蘇聯이 世界共產化를 목표로하는 目的指向國家이다. ② 따라서 蘇聯과 자유세계와는 價値觀, 國家目標, 外交交涉觀등이 전혀 非對稱의이다. ③ 이데올로기, 價値觀을 輕視한 外交는 信仰과 自由擁護라는 傳統의 精神에 反하고 美國의 신용을 추락시켜 同盟諸國과의 龜裂을 초래하였다—등이다.

레이건大統領의 「이데오·폴리틱스」를 端的으로 표시한것이 82年 6月8日의 英下院演說일 것이다. 同大統領은 蘇聯과의 싸움의 行方에 대해서 「最終적으로 그것을 決定하는 것은 폭탄이나 로켓트가 아니고 意志나 이데올로기이다. 換言하면 우리들의 價値觀, 信念, 理想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後 同大統領은 「이데오·폴리틱스」에 宗教를 加한 「릴리지오·폴리틱스」에 移行하고 있는 것 같다. 즉 英下院演說의 9個月後의 翌年 3月 15日 플로리다州 오클란드에서의 연설에서 同大統領은 「美國은 지금 靈的覺醒과 傳統的價値의 再生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함과 同時에 蘇聯을 「惡의 帝國」이라고 부르고 「西方側의 危機의 크기는 神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 共產主義에의 협력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同演說은 美國의 歷史家 헨리·고마자로부터 「美國史上 最惡의 大統領演說」이라고 非難받았다.

그러나 同大統領은 굴하지 않았다. 同年 7月 19日의 워싱턴에서의 「사로잡힌 諸國週間」演說에서 美國을 「神의 뜻을 이루고자하는 사람들이 追求하여 온 나라」라고 規定하고 建國精神에의

復歸를 要求하였다. 또 금년 3月 6日의 오하이오州 콜롬버스演說에서 同大統領은 「우리들은 이긴다. 美國은 神의 側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神없는 세계에 살려고 하면서 그들은 神이 附與한 人權을 잃어버리고 言論의 自由를 抑壓하고 國民을 가두어 버리기 위한 城壁을 만들고 위대한 思想家를 精神病院에 入院시킨다」고 말하여 신앙과 反共의 不可分性을 說明하였다.

自由와 信仰의 一體化宣言

그러면 同大統領의 「릴리지오·폴리틱스」의 背景은 무엇일까.

第一로 레이건大統領은 元來 「信仰人」이라는 것이다. 고통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에 입후보한 理由에 對해서 그는 「지금 그대로서는 美國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人間의 自由의 루트에 對해서 創造主이신 神으로부터 附與받은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者가 泰然하게 사람을 죽이고 自由와 人權을 抑壓할 수 있는것은 無神論者이고 神의 被造物으로서의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自由와 信仰의 不可分性의 「릴리지오·폴리틱스」의 背景이 되고 있다.

第二로 「自由의 大義는 神의 大義」(사람들이 自由를 위하여 힘쓰는 것은 神에 盡力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이다. 솔제니친은 1978年 6月의 하바드大學에서의 演說에서 「建國當初의 美國에서 개인의 人權은 人間이 神의 被造物이기 때문에 神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自由도 부단히 人間의 宗教的責任을 다한다는 假定下에서 條件附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고 指摘하였다. 이 취지에 따라 레이건大統領은 元來부터 신앙과 自由의 追求의 一體化를 主唱하여 왔다.

즉 솔제니친氏와 같이 同大統領은 自由는 다른 사람들의 自由를 위해서도 힘쓴다는 宗教的責任을 同伴한다고 믿고 81年 3月 11日의 캐나다議會演說에서 「모든諸國의 抑壓되었던 사람들의 自由回復를 겨냥한다」고 하였다. 또 昨年 7月 19日의 演說에서 同大統領은 「共產革命은 神위에 자기를 놓고 國民生活을 完全히 支配下에 두는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들은 神의 遺産을 繼承받고 있다. 우리들은 神의 자식이며 노예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豫言者 이사야의 「마음이 아픈者를 위로하고 갇힌者들에게 放免을 선포하라」라는 警告를 인용한 다음 「自由의 大義는 神의 大義이다」라고 宣言하였다.

第三은 利己主義나 民族主義의 克服의 필요성일 것이다. 솔제니친氏가 警告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금의 自由世界의 特色은 넘치는 物的財貨와 自由이다. 그것과 더불어 사람들은 勇氣를 잃고 道義의으로는 오히려 低下되었다. 이리하여 「무엇때문에 또 무엇을 위하여 이 훌륭한 人生을 위협에 내버려 두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고 하여 自由世界의 人間은 共通의 價値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財貨나 自由를 放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大統領은 共

産圈에 갇혀진 사람들의 解放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同大統領은 英下院演說에서 「自由는 幸運의 少數者의 것이 아니고 전인류의 絶對的, 普遍的權利라는 確固한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自己만이 或은 自國만의 自由가 지켜지면 된다는 利己主義나 偏狹한 民族主義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同大統領은 「이테오·폴리틱스」에 宗教的信念을 加하여 「릴리지오·폴리틱스」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要件대 레이건大統領에 있어서 「神에의 信仰」과 「自由에의 싸움」 즉 「反共」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또 同大統領은 共產主義를 惡으로 보는 理由에 對해서 앞서의 오클란드演說에서 「共產主義는 無神論에서 出發하여 그리고 階級社會以外的 모든 倫理를 否定하고 階級鬭爭에 利益이 되는것에 倫理를 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西方側이 이와같은 共產側의 挑戰에 견디는 길은 「神과 自由에 對한 信念以外에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레이건의 릴리지오·폴리틱스의 將來

그는 反共和 信仰의 一體化의 宣言을 한셈이다. 基督教의 신앙이라고 하면 一般的으로 精神生活을 重視하고 物質生活을 蔑視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과연 그도 그러할것인가? 나는 그렇지않고 精神과 物質을 조화하는 혹은 天上과 地上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크게 期待하는 것이다.

統一思想에 있어서의 本體論은 原相論에서 論述되고 있으나 原相의 內容의 神相을 보드라도 性相과 形狀, 陽性과 陰性, 그리고 個別相의 概念을 包含하고 있다. 더우기 本性論에 있어서도 人間은 神을 닮아 창조되어 神相的 或은 神性的存在로서 心情을 中心으로하여 가정을 形成하고 世界를 形成하고 그리고 主管的存在로 되어 있다. 이것은 心情을 中心으로하여 精神과 物質은 分離해서는 안되고 社會의 基本은 가정이라는것을 알리고 그리고 天國은 당연히 科學이 발전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基督教, 마르크스主義의 結점을 克服하고 東西哲學의 統一理論의 기초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基督教의 結점을 克服하고 마르크스主義의 理論的克服을 하는 統一運動의 움직임은 KGB의 攻撃의 對象이 되는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KGB의 暗殺者의 名簿에 로마法王, 레이건大統領, 그리고 統一運動創立者인 文鮮明先生이 올라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過激한 크레믈린을 中心으로 하는 KGB의 對美間接侵略이 陰으로 陽으로 발전되어 美國의 精神的破壞를 노리고 美國의 公산화를 목적으로 하여 그들은 먼저 宗教心의 破壞를 계획한 것이고 이것이 이번의 文鮮明선생의 “有罪”判決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KGB의 宗教破壞工作

文先生 “有罪”判決의 배후에 KGB의 暗躍이 있다는 疑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文先生이 美國에게 무엇을 하려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文先生의 對美戰略

1971년 12월 文先生은 韓國에서 美國에 오셨다. 그 목적은 西方側世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베트남戰爭에서 이미 美側敗北를 豫感한 文先生은 만일 美國이 진다고 하면 美國은 西方側의 盟主로서의 自信을 喪失, 西方側世界는 大混亂에 빠진다고 판단하였다.

西方側이 混亂하면 그사이에 蘇聯이 侵入하여 世력을 확대하는것은 必至의 사실이다.

그래서 文先生은 美國을 激勵하는 最良의 수단을 美基督教界의 부흥으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準備를 한後 73년부터 74년에 걸쳐 全美21都市의 基督教講演旅行을 하셨다.

왜냐하면 美國의 建國이 英國에서 「信仰의 自由」를 얻으려고 逃亡해온 필그림·파더즈(메이 후라워號에 승선하여 美大陸에 온 建國의 祖上)들에 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美大陸에 상륙후 먼저 教會를 세우고 神에의 신앙을 忠實히 지키면서 모든 苦生을 참고 開拓을 하여 美合衆國을 만들어갔다. 따라서 文先生은 이 神에의 신앙을 美國이 다시 찾기만 하면 美國은 다시 自信을 回復하고 西方側의 盟主로서의 使命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文先生에 의한 全美21個都市講演旅行때부터 講演會場에는 蘇聯의 망치와 낫의 印이 들어간 「赤旗」를 휘두르는 反對活動家가 따라다녔다.

이와같은 文先生의 宗教界復興作戰은 1972년 워-터게이트事件때의 「용서하라! 사랑하라! 단결하라!」라는 닉슨大統領支援캠페인도 合하여 74년 매디슨·스퀘어가-든大會 76년 양키·스타디움大會, 같은 76년의 워싱턴·모뉴먼트앞에서의 大會에선 50萬名을 모이는데까지 成功하였다.

이 宗教界復興의 延長線上에 마약, 호모, 레즈등 성풍속의 문란을 배격하고 가정윤리를 再構築 社會秩序를 회복하여 美國의 精神的 소생을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 文先生의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封鎖하려고 하고있던 것이 美國의 共產化를 획책하고 있던 蘇聯 KGB였다.

KGB의 對美戰略

레닌은 “宗教는 阿片이다”라고 단언하였으나 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최대의 障害는 다른 宗教였다. 國民사이에 宗教心이 있는限, 革命工作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蘇聯은 美國에서 教會와 國民을 離間하고 孤立시켜 殲滅하는 作戰을 취하였다. 基督敎的 宗教的 價値觀은 封建的이라고 해서 靑年들을 麻藥, 섹스등으로 教會를 떠나게 하고 教會自體속에는 神學의 두루마기를 입은 共產主義 「解放神學」을 投入시켰다.

이와같은 蘇聯側作戰의 성과의 集大成으로 베트남에서 美國이 패배하고 있을때 文先生이 美國에 오신 것이다.

IPS를 使用 彈壓

美國에서 文先生에의 攻擊이 구체화하기 始作한것은 1970년에 遡及한다. 당시 워싱턴에 本部를 둔 「政策研究所」(IPS)와 協力關係에 있었던 도나르드·레이나—드氏는 同年 國務省(日本의 外務省)의 韓國部長에 취임하였다.

「政策研究所」란 全美國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事實小說 「스파이크」에 의해서 명백히 된 美國最大의 親蘇僞裝(후론트)組織이었다.

레이나—드韓國部長은 就任하자 文先生의 특별보좌관 朴普熙氏가 워싱턴에서 設立하고 있던 對北韓反共放送 「自由아세아放送」을 무너뜨리기로 하였다. 그結果 同放送은 쫓 71년에 閉鎖되었다.

레이나—드韓國部長은 74년에 國務省을 그만두면서 「國際政策센터」(CIP)의 會長이 되었다. 同센터도 「政策研究所」系列의 親蘇組織으로 그속에는 KGB에이젠트였던 오르란드前처리外相(76年死亡), 蘇聯政府機關誌 「소비에트·라이프」의 校正部長이었던 스—잔·웨—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秘密警察의 에이젠트, 데이비드·아—론도 있었다. 이 아—론이란 인물은 民主黨 大統領候補 몬데일氏의 軍사·외교고문이기도 하다.

레이나—드前韓國調查部長은 77년 下院外交委員의 도나르드·프레이저國際機關小委員長에 작용하여 文先生攻擊을 本格化시켰다. 프레이저委員會의 스태프도 「레이나—드前韓國部長이 없으면 이 調査는 始作되지 않았을 것이다」(리처드·마우지)라고 言明하고 있다.

프레이저委員會는 77년에서 18個月間 68萬弗의 資金을 投入하여 文先生의 “非”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이 프레이저委員長 自身, 每年 모스크바를 訪問, 蘇聯諜報關係와 接觸하는 「KGB의 影響力있는 에이젠트」(폴—란드秘密警察에서 亡命者)이다.

프레이저委員長의 文先生攻擊을 繼承한것이 프레이저委스태프이었던 로버트·벤차 部長이다.

同部長은 司法省에 강한 연줄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뉴욕南部地區聯邦大陪審에 文先生을 起訴하도록 煽動하였다고 보여진다. 벤차部長은 텔레비의 토—크쇼에서 文先生調査繼續에 關하여 司法省에 조언하고 있는것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同氏도 또한 美最大의 親蘇組織 「政策委員會」系列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면 美國에서의 文先生攻擊은 KGB人脈에 의해 次例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文先生의 “脫稅有罪”가 認知된 後에는 같은 罪目으로 次例로 牧師, 聖職者를 起訴, 法律의 이름下에 宗教界에 最後의 急所를 찌르는 戰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戰略은 도리어 宗教界團結의 징조를 형성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인터네셔널·코뮤니즘」에 對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勝共戰略의 樹立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共產主義者의 宗教界破壞工作의 間接戰略에 對하여 神의 心情과 神의 救援의 歷史를 科學的으로 나타내는 思想戰, 거기에 따른 精神復興이 먼저 필요하다. 統一思想의 歷史觀인 統一史觀속에 歷史를 움직이는 法則의 하나로 「거짓과 참의 先後의 法則」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인류역사는 惡이 善을 짓밟는데서 출발하여 善과 惡의 鬭爭으로 變遷하여 왔다. 이 歷史의 變遷過程에서 사탄은 항상 하늘側의 理想을 빼앗아 먼저 實現하여 불려고 試圖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 自由世界는 蘇聯이 지금까지 하여온것을 하늘側(善側)에 서서 逆으로 行하여가는 復歸攝理가 가능하다. 요컨대 「惡」에 對한 「善側」의 참다운 反擊이 필요하다.

이것이 새로운 勝共戰略이나 이것을 說明하는 전제로써 먼저 크로—자氏의 戰略을 말하고 最後에 인류의 最高理想인 理想世界(地上天國)成立에 언급하고 싶다.

크로—자氏의 「살아남기 위한 戰略」

이點에서 啓示的인 參考文獻이 되는것이 먼저 말한 부라이언·크로—자氏의 「살아남기 위한 戰略」이다. 同氏의 전략은 「自由世界の 目標」 「9個의 대외정책」 「8個의 國內정책」으로 成立되어 있다.

「自由世界の 目標」는 ① 最終目標 ② 中間目標 ③ 當面目標로 區分되어 있다. 먼저 最終目標에 對해서 蘇聯體制를 終結시키는것, 즉 共產主義이테올로기를 그 母國蘇聯에서 해체시키는것을 提唱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그 超民族的 性格때문에 全世界에 擴大되어 가는 말하자면 암細胞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根元의 암腫瘍을 除去하지 않으면 移轉部分의 암의 치료만을 하여도 根本治療가 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크로—자氏의 戰略에는 中共大陸의 共產主義가 들어있지 않는것이 결점이다.

같은 마르크스·레닌의 이테올로기에서 中共의 共產主義는 출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中共은

10億의 대륙의 人口를 支配하고 아세아에서의 큰 威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크로—자戰略의 補強, 修正案으로서 中共大陸의 非共產化도 最終目標에 添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中間目標에 對해서 크로—자氏는 그 겨냥은 「이미 共產主義側에 상실된 나라들의 非마르크스主義體制에의 회복, 즉 “失地回復”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具體적으로 ① 쿠바, 앙골라등의 諸國, ② 東歐諸國, ③ 究極의 目標은 蘇聯自體라고 하고 있다. 크로—자氏의 「살아남기 위한 戰略」은 1978년에 쓰여진 것이며 이 點에서 약간의 補強이 필요할 것이다. 例示하면 ①에 베트남 니카라과를 添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美軍에 의한 이번의 그레나다作戰은 確實히 中間目標의 “失地回復”의 最初의 成功例로서 特筆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當面의 目標에 對해서 크로—자氏는 「아직 共產勢力에 正복되어 있지 않으나 그 일간은 이미 깊이 侵蝕되어 威脅받고 있는 主要한 確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具體적으로 그 重要性에 따라 ① 美國, 英國, 佛蘭西, 西獨, 日本(만일 一國이라도 共產化되면 나머지 나라들, 나아가서 共產勢力의 標的이 되고있는 地域全體가 살아남을 chances는 致命적으로 減少된다) ② 짐바베와 南아프리카(짐바베가 失落되면 西方側은 中대한 天然資源과 戰略基地를 잃게되며 드디어 살아남는것이 의심될 것이다) ③ 기타의 標的地域으로 되어 있다.

크로—자氏가 英國인이기 때문일까. 若干 아프리카重視의 偏向이 있는것 같이 보여진다. ②에 對해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南예멘등의 中東地域의 나라들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自由世界의 대부분은 그 生存을 中東石油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루트의 美佛兩軍에의 爆彈테러가 말하는 바와같이 蘇聯이 겨냥하고 있는것은 中東地域의 情勢不安定化이기 때문이다. 또 엘살바돌, 혼드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등의 中南美諸國도 重視해야 할 것이다. 蘇聯의 겨냥은 쿠바, 니카라과를 基地로 하여 中南美에서 共產化의 도미노現象을 일으키고 最終적으로는 中美最大의 石油資源國인 멕시코를 共產化함과 동시에 美國을 中南美에서 分斷하는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民族主義, 國家에고의 壁을 克服하라

더구나 中美나 中東등의 第三世界地域의 共產化阻止에서 중요한것은 貧富의 差 人種의 抑壓등의 社會問題의 해결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말한바와 같이 蘇聯은 레닌의 「統一戰線戰略」에 따라 對立이나 不滿등의 內部矛盾을 共產勢力擴大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9個의 對外政策」에 對해서 크로—자氏는 ① 共通戰略樹立을 위한 北大西洋條約機構의 特別委員會의 召集, ② 宣傳情報活動의 擴大, 강화(自由유럽放送 리디오·리바티등의 강화) ③ 對蘇 貸付와 技術輸出의 即時停止, ④ 마르크스主義政權에의 西方側의 經濟的, 軍事的 援助의 全面中止, ⑤ 헬싱키協定の 廢棄등의 데탕트政策의 放棄, ⑦ 國聯에의 財政分擔의 縮小내지는 中止 ⑧ 軍事力強化, ⑨ 外國에서의 情報收集과 秘密工作—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②인 것이다. 존·싱글러브前駐韓美軍參謀長이 指摘한바와 같이 蘇聯의 아키레스踵은 共產主義에 對한 共產圈內의 民衆의 不滿과 反感이기 때문이다. 例示하면 蘇聯國內에서 40年前의 우크라이나型的 反亂軍이 (한 그룹) 出現하였다고 하면 또는 바르샤바 條約機構諸國內에서 한 그룹의 “포—란드”가 출현하였다면 蘇聯軍은 외부에 冒險主義的인 行動을 일으킬 여유를 잃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솔제니친氏나 마가렌고氏가 강조하는 바와같이 自由世界의 강력한 同盟者는 蘇聯國內의 自由를 요구하는 2億이 넘는 民衆, 그리고 竹의 카—텐의 內部에서 解放의 날을 기다리는 10億의 民衆이다. 그러면 自由유럽放送, 리디오·리바티, 보이스·오부·아메리카등을 通하여 「眞實」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것은 큰 戰爭抑止力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核戰爭의 危險을 동반하지 않는 戰爭抑止政策,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의 反擊에의 가장 具體的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美, 歐, 日의 役割分擔에 대해서는 美國은 核戰爭에서의 인류의 解放 西歐諸國에 대해서는 蘇聯, 東歐에의 地理的接近 때문에 蘇聯이나 東歐諸國의 「사로잡힌 사람들」에의 精神的 物質的援助, 反體制運動家에의 支援를 分擔하여야 할 것이다. 또 日本은 共產中國의 「非마르크스化」를 겨냥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核戰爭으로 부터의 解放에 대해서는 飛行中の 蘇聯核미사일을 宇宙空間에서 擊破한다는 美國의 21世紀의 計劃 「하이후론티어計劃」의 實現이 期待될 것이다.

「8個의 國內政策」에 對해서 크로—자氏는 「이미 情報戰爭이라는 形式으로 第3次大戰은 進行中에 있으며 그리고 自由世界는 이에 敗北當하고 있다」고 하는 쏘르제니친氏의 말을 인용하면서 敵은 「異邦人」에 限하지 않고 「內部的 敵」과 싸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自由의 敵에 對하여 自由를 破壞하는 無制限의 權利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매스컴, 學界, 勞總, 政黨등에 潛入한 마르크스主義者對策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스파이行爲取締와 國家機密保護의 강화, ② 破壞工作防止의 강화(蘇聯으로 부터의 宣傳資料의 流入制限등) ③ 蘇聯 및 他共產主義諸國에의 旅行者의 체크, ④ 教育 및 미디어內의 마르크스主義者의 제거, ⑤ 共產主義후론트組織의 強制登錄, ⑥ 政黨의 自由主義體制에의 忠誠宣言 ⑦ 共產黨이나 파시스트政黨에의 對策강화, ⑧ 産業破壞活動의 取締강화.

새로운 勝共戰略의 特質

이와같이 크로—자氏의 「살아남기 위한 戰略」에는 많은 提言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勝共戰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가지點을 確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第一은 基本原則속에 있는 「第3次世界大戰」이 統一史觀에서 보아도 善과 惡과의 싸움이고 人類의 墮落이 神의

말씀의 喪失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며, 이 第3次世界大戰은 主體的으로 思想戰이라는 確認이다. 이 思想戰은 反宗教的인 怨念의 情에서 출발한 마르크스主義에 對하는 敵이라도 사랑하는 神의 心情에서 出發한 精神復興과의 싸움이며 그것은 神을 중심으로한 家庭形成을 要求하고 더 우기 社會倫理의 부흥, 國家倫理의 질서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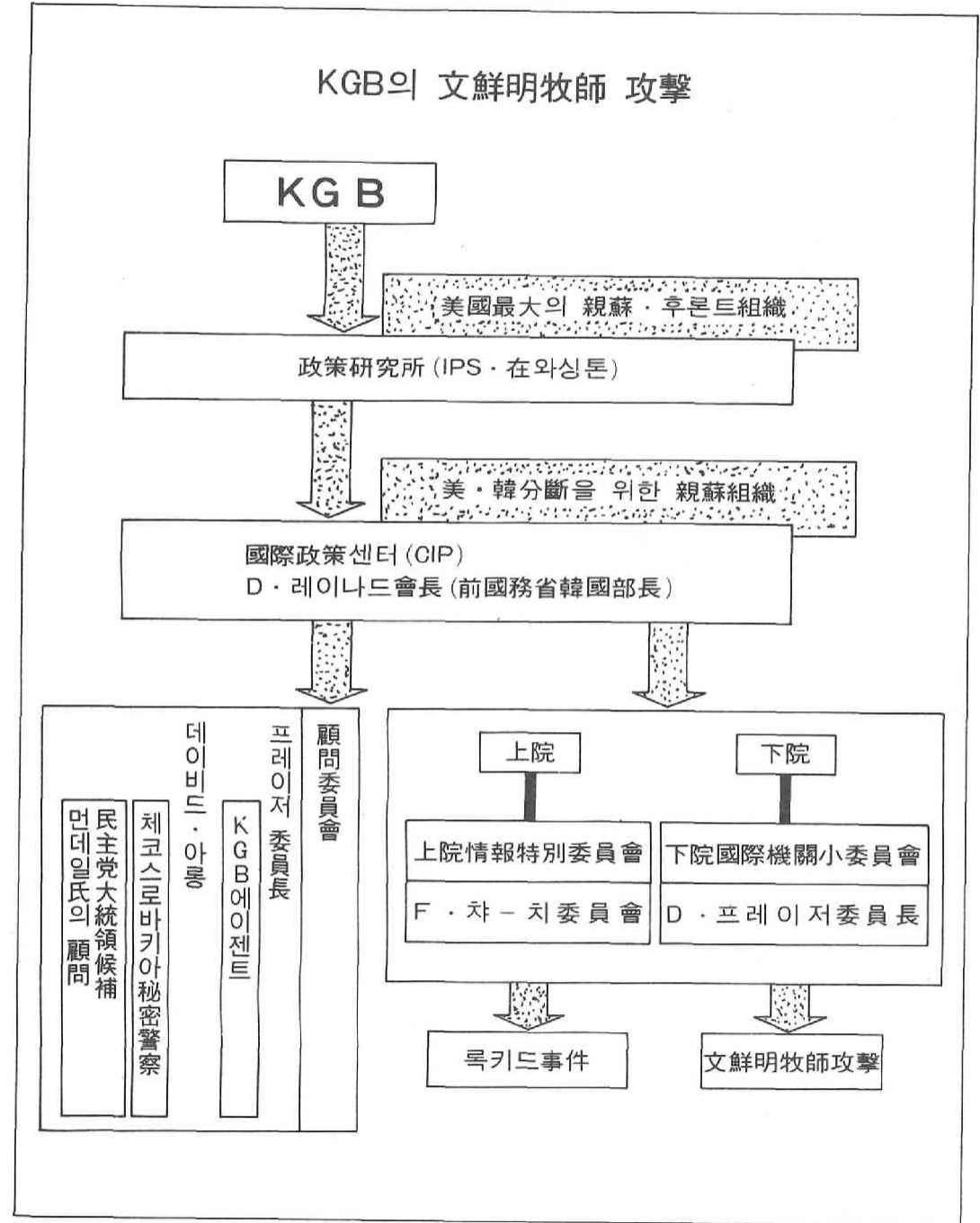
第二로 統一思想이 밝히는바와 같이 共產世界에 代身하는 善側의 社會는 本性論, 倫理論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神中心(고디즘)의 一家族世界이다. 그러기때문에 이 一家族世界에 의한 地上 天國의 실현을 人類最高의 理想으로 해야할 것이다.

第三으로 지금까지의 平和觀에 對한 發想을 轉換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世界의 平和가 前提가 되고 그 土壘위에서의 國家의 平和, 社會의 平和, 그리고 個人의 平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平和觀이 國際聯合의 役割의 장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디즘을 중심으로 하여 世界의 平和는 먼저 個人의 平和, 그리고 家庭의 平和가 있고 그위에 社會, 國家, 그리고 最後에 世界의 平和가 있다는式으로 發想의 轉換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三點을 加速시킴으로써 그로-자氏가 主唱하는 「실아남기 위한 戰略」이 신앙을 中心으로 한 人類大家族世界, 즉 地上天國을 겨냥한 「새로운 勝共戰略」으로 되어 레이건이 主 張하는 밀리지오·폴리텍스도 아마도 이 方向으로 갈것을 기대하면서 이 論文을 끝마칠까 한다.

● 資 料



•資料 自由世界가 살아남는 戰略

[美·歐·日의 責任分擔]

美國—核戰爭으로 부터의 人類의 解放, 「하이프론티어計劃」의 實現

西歐諸國—地域防衛의 第一義의 責任을 遂行하다. 蘇聯·東歐諸國의 解放政策

日本—地域防衛의 第一義的 責任을 遂行하다. 大陸中國의 「非마르크스화」戰略地域에의 經濟援助, 自由諸國內의 對立防止, 貿易自由化

人類의 最高理想

- 一 가족 세계에 의한 地上天國의 實現
- 國家 ego, 民族·宗教對立을 克服

最終目標

- 소비에트 體制의 終焉
- 大陸中國의 非共產化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를 母國에서 解放하지 않는 限 勝利는 없다)

中間目標

- 共產諸國을 非마르크스主義體制에 回復한다.
第一目標: 蘇聯의 邊境衛星國(쿠바, 앙골라, 베트남, 니카라과아)
第二目標: 東 歐
第三目標: 蘇 聯

當面의 目標

- 蘇聯에서는 이미 깊이 侵蝕되어 威脅을 받고 있는 地域의 主要地點의 確保
第一目標: 美國, 英國, 仏蘭西, 西獨, 日本(一個國이라도 共產化되면 自由世界의 살아남는 шан스는 致命的으로 減少한다.)
第二目標: 짐바브웨, 南阿,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南에멘, 엘살바도르, 온드라스, 과테마라, 멕시코, 베네주엘라(自由世界의 天然資源과 戰略 基地를 잃어서는 안된다.)
第三目標: 그 외의 目標地域(蘇聯의 支配下에 있지 않는 世界의 모든 것)

對內政策

對外政策

基本原則

⑧ 産業破壞活動에의 對策

- 組合이 蘇聯이나 마르크스·레닌主義者로부터 經濟援助를 받는데서 違法이라고 하는 法律制定
- 基本의 産業(通信, 水道, 燃料, 電氣, 食品關係)의 파괴를 禁止한다.
- 스트리크를 하는 者나 家族에 對한 國家援助의 禁止
- 勞相執行部의 지도를 強制的인 秘密郵便投標로 한다.
- 對입制의 禁止, 組合에서의 脫退의 自由確保

⑦ 共産黨이나 파시스트 政黨에의 對策

- (1) 理論的인면의 民主主義의 破壞를 究極目的으로 하는 政黨이 民主主義體制에서 禁止되도록 한다. 理由는 正當하다.
- (2) 그러나 形式的인 禁止는 必要없고 現實的인 것이다. 民主主義體制에의 忠誠의 證據를 要求하면 된다.
- (3) 禁止가 現實的인 것이 되느냐, 아니면 허위의 危險에 對한 世論의 覺醒에 따른다.

⑥ 政党的의 自由主義體制에의 忠誠宣言

- 自由의 敵에게 自由를 파괴하고 無制限의 權利를 認定해서는 안된다.
- 自由主義 體制에 對한 無條件의 忠誠을 高揚하고 政黨만이 選舉에 候補者를 세우지 않아야 한다.

⑤ 共産主義前衛組織의 強制登錄

(마르크스主義者는 權力奪取을 要求한다. 自由世界에 이 方面의 浸透가 甚하다. 受勢의 姿勢로선 배양될 必이다. 勞組의 파괴의 防止) (정경의 更新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教育·마스킹으로 活動하는 마르크스主義者의 除去

(蘇聯에서 破壞工作이나 테러의 訓練을 받고 돌아오는 者가 있기 때문이다.)

③ 蘇聯 및 共産圈에의 旅行者의 체크

● 共産國家의 代理人이나 影響下에 있다고 보여지는 機關의 強制登錄을 法律化하다. ● 蘇聯으로부터 宣傳材料의 輸入制限(蘇聯은 西方側으로부터의 文書輸入을 制限하고 있다.)

② 破壞工作對策

● 外國 秘密機關에 의한 破壞 工作의 防止의 法律을 制定한다. ● 美國內에서인 스파이活動取締

① 스파이防止, 國家機密의 保護

● 報章機關에의 機密文書提供도 處罰받게 한다. ● 유엔에 나가서인 KGB나 蘇聯情報本部情報管理部 KGB(蘇聯國家保安委員會)의 美國內에서인 스파이活動取締

⑨ 外國에서의 情報收集能力 및 秘密工作의 強化

● CIA(美國中央情報局)를 비롯한 西方側 情報機關의 再生·強化 이데올로기戰, 스파이戰을 中心으로 하는 第三次世界大戰에인 特別重要

⑧ 軍事力強化

● 蘇聯의 核優位를 不許하는 體制의 確立(第三次世界大戰에서의 蘇聯의 威脅作 戰에 對하지 않기 爲해) ● 集團防衛能力의 向上, 維持 對蘇安全保證體制의 確立을 爲해

⑦ 유엔財政의 分擔縮小 或은 中止, 戰略地域에의 經濟援助

● 유엔은 西方側의 力이 弱해지고, 蘇聯陣營에 이 方面의 有利한 組織이 되고 있다

⑥ 데탕트의 幻想에 眩惑되지 않는다.

● 데탕트는 蘇聯側을 一方의 利를 見게 하는 蘇聯의 作戰이라는 認識을 明確히 한다. ● 헬싱키協定の 公式放棄를 檢討

⑤ 게릴라 訓練計劃

● 아프리카, 아세아, 中東, 西歐等에서의 威脅을 받은 國家들의 政府의 同意 下에서 反公共訓練을 現地에서 行한다. ● 共産圈에서의 行動의 可能性 期待

④ 마르크스主義政權 或은 革命的政權에 對한 西方側의 經濟的·軍事援助의 再檢討

● 潛在的인 敵보다도 友好國에의 援助를 優先的으로 強化 ● 民衆의 利益을 考慮한 援助計劃 ● 目標地域으로 되어 있는 各國 政府의 蘇聯 離脫을 促進

③ 對스貸付·技術輸出의 即時停止

● 아프리카, 아세아, 中東, 西歐等에서의 威脅을 받은 國家들의 政府의 同意 下에서 反公共訓練을 現地에서 行한다. ● 共産圈에서의 行動의 可能性 期待

② 對共産圈을 向한 宣傳情報活動의 擴大·強化

● 라디오·후리·歐羅巴, 라디오·리버티, VOA(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海 外公報社, 비스 능력의 增大, 라디오·재판의 再編·強化 ● 蘇聯이나 東歐의 텔레비전에 直接放映을 許하는 技術의 開發

① NATO 特別委員會 및 日美歐정상회담을 招集하고, 左記의 事項을 協議한다.

- 特別委員會의 任務 (1) 同盟諸國과 日本이 카바하는 地域의 擴大 (2) 對蘇·對共 政策 (3) 破壞, 테러工作에의 共同의 對策樹立

③ 國內에서의 戰爭

「第三次世界大戰」은 「國內에서의 戰爭」이기도 하는 것을 國民에게 認識시켜, 勝利를 거둔다. 自由의 어느 程度의 制限의 必要性을 理解시킨다. 「第三次世界大戰」은 「國民」은 싸울 수 없다. 自由世界諸國의 總力의 結集이 必要하다. 認識에서 出發한다.

② 政府에 의한 國民의 啓蒙

自由世界가 살아남는 戰略은 徹底한 政策變更이기 때문에 國民에게 充分히 說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威脅의 統一

「第三次世界大戰」은 이미 始作되고 있으며 自由世界를 威脅하는 敵은 外部와 같이 内部에도 있다. 認識에서 出發한다.